

# 모든 언어로 성경을

IN OTHER WORDS

## 성경 번역 포커스

### 이번 호 내용:

- 아이디어 (AIDIA): 성경 완역 막바지에서
- 파얏 대학의 장학생
- 기도 사역으로의 초대
- 캐나다 한인 디아스포라와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성경번역 협력
- 부르심을 다르게 돕는 사역



사진: 청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콩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드는 모습



## 인쇄의 장벽을 넘어서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번역

글 : 덕 록하트 (Doug Lockhart)

여러분이 성경 번역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림과 지도가 있는 수백 장으로 제본된 두꺼운 책이 머리에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쇄된 성경이 청각 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별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놀라시겠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청각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글을 읽는 것은 쓰여진 글자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듣고 글자와 소리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쇄된 종이 위에 있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세계의 청각 장애인 공동체들이 위클리프 및 다른 성경 번역 사역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각 장애인들의 깊은 생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곧 수화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놀로그 (Ethnologue) 책자와 웹사이트에는 위클리프의 주요 자매 단체인 국제 에스아이엘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이 조사한 세계의 모든 언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수화는 현재 144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더 많이 등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SIL 국제 수화팀 홍보사역 담당 캐롤린 리더 (Carolyn Rehder)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수치 범위는 어림짐작일 뿐이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그만큼입니다.”

캐롤린과 그녀의 남편 댄 선교사와 함께 섬기고 있는 국제 수화 팀은 약 50 명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화 번역 관련 사역자들은 350명이 훨씬 넘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청각 장애 학생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생업 기술을 배우고 있다 (사진 : 알란 훗 Alan Hood)

## 배움의 장벽들

최종 집계가 어찌되었던, 세계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경번역은 기념비적인 사역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인구 추정치는 제 각각 다릅니다. SIL의 한 연구 조사로는 약 3 천 3 백만 명으로 나왔지만, 청각장애인 국제 연맹에서는 7 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국제 연맹의 추정치에는 후천성 청력 손실 인구, 즉 비디오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더 선교사는 “그들 모두가 청각 장애 문화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때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청력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각 장애 발생의 다양한 요인들이나, 국제 공용 수화가 없다는 점들이 수화 성경번역 사역에 큰 장애가 됩니다.

청각장애인들 중 일부가 글을 읽을 수 있다지만, 전세계적으로 약 80 %의 청각장애인들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읽고 쓰는 능력(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레더 선교사는 또 말합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기능상 문맹 수준입니다. 대개의 경우 글 읽기를 배우기 전에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은 들을 수 있는 능력, 청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들은 청력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합니다.”

## 미전도 종족

문맹은 청각장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큰 장벽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의 교회가 극히 드물고, 활발한 청각 장애인 공동체가 없는데,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는 지역 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때로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고립되어 외롭게 삽니다.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듯이, 청각장애인들 역시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언어(수화)로 말씀을 접할 때,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수화 성경번역은 청각장애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교사와 목회자로 또 다른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하나의 수화, 미국 수화뿐만 성경 전체가 번역되었습니다.

국제 수화 성경번역 팀은 수년 내에 획기적으로 그 숫자를 늘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어인터내셔널, 수화 성경, 연합 성서공회, 그리고 다른 많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각장애인들이 성경번역 프로젝트에 주인정신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번역 프로젝트가 모두 고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고, 선교사의 주 역할은 번역 자문입니다.” 라고 레더 선교사는 말합니다.

## 혁신적인 접근법

그렇다면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성경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의욕적인 청각장애인 신자들이 동영상 수화 성경번역을 하고 있는데, 연대 순서로 여러 성경 본문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각 구절 단위로도 번역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만 수화로 번역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번역합니다.”라고 리더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번역하는 것은 성경번역 사역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 자체도 “연대순 성경 이야기”라는 말 대신 “연대순 성경번역”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통 성경 이야기부터 번역을 시작하는 것은 이야기가 번역이 쉽기 때문입니다. 팀에는 연기자, 기술자, 언어 컨설턴트, 그리고 점검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언어로 번역된 내용의 정확성과 명확성, 자연스러움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수화 번역은 생각보다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이야기의 물리적인 배경과 상황, 등장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시각적 자막(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 번역과 달라서, 실수하면 쉽게 고칠 수가 없고, 전체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수정 작업을 여러번 반복해야 제대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리더 선교사에 의하면, 어느 국제수화팀의 자문위원은 20년 동안 성경번역을 섬긴 후에 다시 수화 번역으로 10년 동안을 더 섬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화 성경번역은 일반 성경번역보다 최소한 세 배 이상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번역을 마친 동영상은 전용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각장애인 공동체들에 배포가 됩니다.

댄 리더 선교사는 국제수화팀의 행정 부책임자로 아메리카 전지역의 수화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는데, 에스아이엘이 참여하고 있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브라질과 콜롬비아 프로젝트들을 감독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6개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 받을 경우, 성경 주해 작업이나 다른 자료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라고 댄 선교사는 말합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수화 프로젝트는 에스아이엘이 90년대 중반부터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시작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일본과 스페인에 있는 수화팀들과도 유사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스아이엘과 다른 파트너들이 함께 아프리카, 유라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화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이코 야노 사역자가 일본 도쿄에서 수화 성경 녹음중 휴식 시간에 일하는 모습 (사진 : 마크 이월 Marc Ewell)



태국 방콕의 한 교회에서 청각장애 여성이 태국 수화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 : 마크 이월 Marc Ewell)

##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화 프로젝트 협력

동남아시아에 있는 청각장애인 40 만 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제공하는 일명 “평화의 강\* 수화”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다수가 불교 신자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섬기는 소수 민족은 더우기 분쟁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청각장애인 신자들이 성경의 주요 연대기적 이야기들을 수화로 번역하고 있고, 수화 성경번역 팀의 단기 목표는 39개 본문을 번역하여, 마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동남아시아 SIL 지부에서는 이들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주도해서 번역 프로젝트를 감당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캐롤린 리더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어떤 것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분들 스스로 리더십을 갖게 했습니다.”

갈수록 성경번역이 필요한 수화의 갯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화 성경번역 전문 컨설턴트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평화의 강 프로젝트에서 마가복음 13장 번역에 도움을 주었던 플로라(가명)처럼 수백 만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플로라의 말입니다.

“좋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번역이 인준되었습니다.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청각장애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이런 귀한 성경의 말씀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번역된 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

\* 보안 상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절대적인 기도의 필요

글 : 버트 비써 (Bert Visser), 기도 동원 사역 책임자

위클리프 캐나다 기도 부서 사역자들에게는 두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클리프 캐나다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독려하는 것이고, 둘째는 캐나다의 교회들이 세계 소수민족의 성경번역과 언어 개발 사역을 위해 긴박감을 갖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캐나다 사역자들은 캐나다 교회의 일원이며, 동시에 성경번역 사역을 많은 지역 교회에 알리는 위클리프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위클리프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고 기도의 비전을 공유할 때, 캐나다의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캐나다 교회는 전세계 소수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경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나 번역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혁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사역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은 훌륭한 언어학 지식과 번역 기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장비 구입과 모어 성경 배포를 위해 헌금 하는 것, 현지인 스스로 문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사역의 모든 부분과 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서서 (겔 22:30), 이 사역이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열매맺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의 질병이나 죽음, 전기 공급 부재, 컴퓨터 고장, 팀 내 갈등, 자금 부족, 공동체의 관심 부족, 거짓 비방, 박해 등등 성경번역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로 사람과 장비와 사역을 지켜냅니다.

주님은 “새로 제자삼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NLT)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성경에 적혀있으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언어 민족들이 자기말로 된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선교사로 직접 동참함으로 이 목표가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세계 선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을 갖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위클리프 캐나다가 집중 협력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들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선교 현장에서 성경번역 사역을 감당하는 국제 SIL 소속 위클리프 선교사들과 자신들의 소수 언어 공동체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구성된 현지인 성경번역 단체와 사역자들이 포함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과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지 파트너들과 신실하고 헌신적인 기도로 함께 동역할 때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중보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사역은 단순한 과업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 변혁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어로 번역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필요한 언어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



한 케추아 남성이 페루 타크마라에서 열리고 있는 문해교실에서 소리내어 글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 : 나타샤 라미레즈 Natasha Ramirez)

## 험산준령 깊은 골짜기에 울려퍼지는 말씀

아이디아 (AIDIA)는 페루 안데스 산지 여러 마을들에 그들의 말인,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글 : 드웨인 쟁키(Dwayne Janke)

아래 글은 *Word Alive Magazine* 2014년 여름 호에 출간된 기사를 요약하여 다시 게재한 것입니다.

**페**루의 가파른 안데스 산지 아푸리맥 지역에 사는 케추아 사람들은 그 지세와 모든 자연 현상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아푸리맥’이란 지명도 이 지역에 흐르는 강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뜻은 “말하는 신”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강물 소리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말하는 소리’가 이 페루 남중부의 아푸리맥 강 주변 골짜기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아방카이부터 외지고 가파른 산등성이와 깊은 계곡에 비추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장엄한 이 고산 지대에 사는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사람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아 (AIDIA)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디아는 교회에 기반한 단체의 이름입니다. 스페인 어로 “아푸리맥 지역 총체적 개발을 위한 초교파 연합”이란 뜻의 약자입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아이디아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고, 아이디아의 스텝진은 아푸리맥 지역의 가장 큰 복음주의 교단들 소속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2012년에 신약성경 번역을 마치고 이제 구약성경 번역을 시작하여 이 페루 남부 아푸리맥 고산지대에 흩어져 사는 약 20만 명의 케추아 사람들과 공동체에 성경 전권을 제공하고 번역된 성경을 활용토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리더는 (2014년 현재) 40세인 루이스 세르반테스 (Luis Cervantes) 목사로 아내 실비아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 일상의 어려움

이 험준한 아푸리맥 지역의 “일상” 삶은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3분의 2가 빈곤 상태이며 깨끗한 물과 오물 처리 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디아가 사역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의 언어,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타 다른 기독교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에 응하여, 아이디아는 6 개의 주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성경 번역, 문해 사역, 교회 지도력 개발, 시청각 성경 자료 개발, 어린이 주일학교와 캠프 장려 등입니다.

## 언어 장벽

페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나 케추아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스페인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르반테스 목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모두 케추아 말로 이뤄집니다.”

이 지역 인구의 22%가 학교에 가본 적이 없고 케추아 말만 할 줄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스페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2006년에 세 교단에서 여섯 명의 케추아 목회자들이 성경번역 사역자로 훈련을 받고, 세르반테스의 리더십 아래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동부 아푸리맥 케추아 언어로 신약 성경 번역이 완료되고, 아방카이에서 열린 봉헌식에서 8천 권의 신약 성경이 인쇄 배포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케추아 성경이 신자들과 목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에미 로자스 쿠씨 (Noemi Rojas Cusi) 가 어린 학생이 글씨 쓰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아방카이 근교 시골 마을 문해교실 수업 모습 (사진 : 나타샤 라미레즈 Natasha Ramirez)

## 이해하기 쉽고 삶을 변혁시키는 모어 성경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케추아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세르반테스 목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술을 끊고, 남자들이 가정 폭력을 멈추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밭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들판이 훨씬 더 푸르고 작물이 웃자라며, 집들도 아주 좋은 상태로 관리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에서 어른까지

아이디아는 복음 전도 사역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해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문해 센터를 교회에 세우고, 자원봉사 교사들을 훈련해 문해 교실을 운영합니다.

세 살 박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3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에 기초한 자료들을 교재로 사용합니다. 학교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중년 부인들도 와서 배웁니다. 문해교실을 통해서 읽고 쓰기 기술이 늘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구전 성경 교실도 엽니다. 교사들은 글자가 없는 그림 책만 사용하여 케추아 말로 성경 이야기를 외우게 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 교회 리더 발굴 및 개발

많은 케추아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골 지역 사람들은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아무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훈련받지 못한 시골교회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자주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디아는 케추아 성경을 사용하여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르침을 이해하게 도와 줍니다.

또한 케추아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보통 어른들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아에서는 주일학교와 교회 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케추아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며, 어릴 때야말로 하나님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아의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케추아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 나타샤 라미레즈 Natasha Ramirez)

## 절대적으로 중요한 동역

모든 연령대를 위한 교수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디아 번역 및 훈련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시청각 자료는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과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행 속도와 성공 정도에도, 고립되어 있는 수많은 케추아 공동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손과 재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이자 번역사역자인 펠리페 발렌주엘라는, 아이디아의 전략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성도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것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



방학 기간 동안 가족의 농사 일을 돕고 있는 사로

## 사려깊은 태국의 메신저

글 : 루스 리처트 (Ruth Richert)

**숲**이 무성한 태국 치앙마이 지방에서 자란 사로차 (사로) 옷마니사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7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1 년 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역 교회의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로는 아버지에게서 성경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뭔가 허전하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사로는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고, 수 년이 걸렸습니다.” 그 탐구심으로 인해 사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성경 번역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선교사를 통하여 감명을 받다

몽(Hmong) 족 농가의 6 자녀 중 하나인 사로는 초등학교 시절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는 부모님의 채소밭 농사를 도왔습니다. 사로가 12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몽족 성경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학교가 가까운 치앙라이 지방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치앙라이에 가자 사로는 자기 모어인 몽어보다는 태국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새 친구들과 완전히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이 루 (Tai Lu, 다른 소수 언어 부족) 출신들이라, 보통 저는 타이 표준어로 친구들에게 말했고, 제 친구들은 자기네 타이루 말로 대답을 해 왔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기는 했지만, 학교에서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사로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학교 규정 때문에 자주 불당에 가야했고 불교 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불교의 가르침을 암송해야 했는데, 그게 싫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제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새 마을에서의 삶은 사로에게 장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체험이었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아버지가 몽족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온 뉴질랜드 출신의 선교사와 함께 일했는데, 사로는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 여성 선교사에게 무척 매료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했던 것처럼 저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제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재미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깊숙이 자리잡게 됐습니다.”

### 그리스도와의 만남

사로는 19살 때 여름 청소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게 하셨다고 사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만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사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2학년일때, “카페 위클리프”라는 행사를 통해 위클리프 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이 선교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언어 조사와 성경 번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즉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저의 관심을 끌었다”고 사로는 회상합니다. “제가 위클리프의 발표를 듣는 동안 ‘바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 잘 못하지만, 성경 번역사역자로서 글로벌 책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로는 자기 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씀을 들었을 때)깊은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위클리프 태국의 대표인 타라왓 수브타얏 선교사가 사로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을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치앙마이에 있는 파압 대학교의 언어학 석사과정이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 언어학에 빠지다

파압대학의 언어학 석사과정은 에스아이엘 (SIL, 위클리프의 주요 자매 단체) 과 파압 대학교의 공동 비전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석사 과정의 목표는 성경 번역과 언어 개발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며, 동남아시아인들이 그 지역에서 성경번역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경험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수진으로 섬기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10개의 코스와 졸업 논문을 이수해야 하는 엄격한 프로그램입니다. 치앙마이 주변에는 다섯 개의 다른 언어들이 있어 위치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위클리프에서는 사로에게 파압대학교에 등록할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고 사로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과정을 통하여 언어의 본질을 배우고, 또한 언어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성경 번역에 적용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본문이든 정확하고,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평범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세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파압 대학에서 숙제에 열중하고 있는 사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압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는 사로는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하면 이웃한 보안 지역 한 국가의 언어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할 때, 선교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뿐이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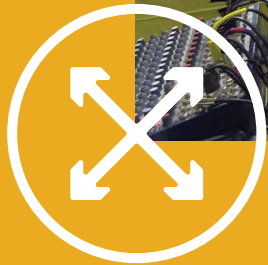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영원히 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도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



사로 자매가 본인이 속한 셀그룹 식구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습



이규준 선교사가 캘거리 교의 한 캠프장에서 열린 캘거리한우리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첫걸음선교이야기 프로그램을 섬기는 모습. 첫걸음선교이야기는 이민자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이해하고 선교적 삶의 기초를 닦게 돕는다.



## 소수 민족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번역 선교 동참

글: 이규준 선교사 / 디아스포라협력 디렉터

**현** 시대는 전례 없이 수 많은 민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캐나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흡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캐나다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깨닫고 저희와 함께 성경없는 부족들을 섬기는 일에 동역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캐나다의 디아스포라 사역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동원사역자로 섬기고 있던 갈랜드 호엘 (Garland Hoel)은 캐나다 내 소수 민족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이 성경번역 사역에 동참하도록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2천 년 내에 이르러 위클리프 국제 연대에서 시작한 아시안 디아스포라 운동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클리프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소수민족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인과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팀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용어인 영어나 불어와 서구의 문화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언어와 문화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캐나다 내 디아스포라 교회야말로 아직도 자기말로 된 성경이 없는

세계의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며 그들도 자기 말과 문화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 간의 “복음을 위한 교제”(빌 1:5)가 너무나 소중함을 믿기에, 위클리프 캐나다는 캐나다 내의 디아스포라 교회와 모든 교회와 성경번역 사역 현장에 있는 소수 민족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이 ‘말씀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일에 힘쓰며, 이를 통해 주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위클리프 캐나다 디아스포라 협력 팀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타단체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선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원하시는 교회에게는 현지의 성경번역 사역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킹덤 프렌드십” 단기 사역 기회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동안 기도와 물질과 인력으로 동역해 주고 계시는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선교 현지의 소수민족들이 성경 번역과 성경 활용, 문해사역과 다중 언어 교육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 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열정과 사역을 가지고, 저희 위클리프 캐나다와 성경번역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



동원 사역자 매리 엘렌 포스트 (Mary Ellen Faust) 선교사가 2020년 밴쿠버 지역 미션 페스트에서 방문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 : 김 하야시 Kim Hayashi)



## 각자에게 적합한 사역을 찾도록 돕는 동원 사역

글 : 덕 록하트 Doug Lockhart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나 더 큰 단위의 지방 선교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 수십 개의 선교 단체 부스들을 지나쳤을 것이고, 아마 위클리프 캐나다도 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 단체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에 가져갈 안내 책자나 잡지를 집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러한 선교 행사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관심이 선교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선교 단체들과 너무나 다양한 선택의 선택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동원 담당 디렉터인 로이스 앤더슨 (Lois Anderson) 선교사와 캐나다 전역의 동원사역자 팀이 장/단기 선교사역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과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한번의 행사에서 나누는 일회적인 대화를 넘어서, 이 “분별의 여정”에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원사역 팀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속한 교회와 그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로이스는 말합니다.

## 수많은 선교사들의 필요

아직도 2 천 개 이상의 언어 공동체에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기에, 로이스 선교사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모험도 되며, 비용도 들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명/은사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밟도록 돕습니다.”

로이스 선교사는 전 세계 위클리프 동역 단체들에, 경험 많은 인재들을 포함하여 여러 인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교사 경력을 통해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사 자녀(MK-missionary kid)’로 성장한 그녀는 후에 아프리카 카메룬의 레인 포레스트 국제학교에서 교사겸 행정가로 20 년간을 섬겼습니다.

“저는 학교의 책임자로서 다양한 직책을 맡길 사람들을 찾아야 했는데, 문제는 어떤 직책이든 늘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학자 칼 화이트헤드 선교사가 2014년 “레이스 투 2025” 기금 모금 행사에서 성경 번역 선교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알란 후드 Alan Hood.)

## 함께 찾아가는 사역의 기회

누군가의 재능이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 지를 분별하게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메일이나 줌 미팅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 한 후에도, 문의했던 사람이 결국 위클리프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로이스와 팀원들이 다른 선교 단체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나눔의 정신은 선교 헌신 후보자들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동시에 이들에게 다양한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ower to Change (국제대학생선교회 CCC의 새명칭) 나 IVF 같은 대학생 선교 단체들과의 상호 협력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혁신의 기회

단체 간의 협력과 또 다른 고무적인 연계 노력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신의 은사를 찾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동원팀의 노력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행사는 또 다른 소통의 기회입니다.

작년 10월 “온라인 세계 선교 기행” 행사에 43 명이 참석했고, 그 중 3분의 1이 자신들의 은사가 선교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더 알아보고자 위클리프 동원팀에 선교 코치와의 지속적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또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위클리프 캐나다의 성경번역 선교사 훈련 자매 단체인 ‘캔아이엘’(CanIL, BC 주 랭리와 온타리오주 토론토 소재)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채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의 모금 행사 프로그램인 ‘레이스 투 2025’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전 행사 코디네이터인 샘 윌리 선교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서부의 기독교학교들과 및 신학교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전문 직업인들도

학교 캠퍼스들이나 어바나와 같이 인기 있는 선교 대회들을 통해 선교에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지만, 동원 사역팀은 “실 새 없이 일하는 전문인들” 즉 이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선교에 더 많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20세부터 35세까지의 사람들과의 연계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 제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로이스는 말합니다.

로이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에 잘 맞을 만한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카메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인 ‘테인 포레스트 국제학교’의 성경 교실을 온라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성경번역 사역을 소개하고 나누며, 이 사역을 섬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함을 나누는, 동원사역을 할 때 제 속에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



소식지의 영어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tories.wycliffe.ca](https://www.stories.wycliffe.ca).

사역에 대한 문의나 동참에 대한 질문, 이 소식지 구독에 관련된 것은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윤기태 선교사 : [daniel.yoon@wycliffe.ca](mailto:daniel.yoon@wycliffe.ca) 1-905-348-2275